# 빈자리 없음

2026.10.28-11.1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 DAC Artist
## 이경헌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공연 예술 분야의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아티스트**
**Artist**
**(2008-2026)**

백혜경(연극창작자)
서동민(극작가)

본주(작·연출가)
〈갱更〉
이경헌(극작가)
〈빈자리 없음〉

강동훈(극작가)
〈도그 워커의 사랑〉
박주영(작·연출가)
〈마른 여자들〉

배해률(극작가)
〈시차〉
신진호(연출가)
〈애도의 방식〉

강현주(작·연출가)
〈잘못된 성장의 사례〉
진해정(작·연출가)
〈러브 앤 인포메이션〉

진주(극작가)
〈클래스〉
추다혜(국악창작자)
〈광-경계의 시선〉

이승희(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김수정(작·연출가)
〈김수정입니다〉〈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경성(작·연출가)
〈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폭스파인더〉〈죽음과 소녀〉

양태석(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Solo〉
〈솔로 드럼 퍼포먼스〉,
앨범 〈Human Fractal〉

김은성(극작가)
〈뻘〉〈목란언니〉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나는 나의 아내다〉〈배수의 고도〉
〈사보이 사우나〉〈목란언니〉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잠 못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폭스파인더〉

성기웅(작·연출가)
〈가모메〉〈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깃븐우리절믄날〉

이자람(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
〈사천가〉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청춘, 18대 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백혜경(연극창작자)
Baek, Hye Gyeong
Play artist


서동민(극작가)
Seo, Dong Min
Playwright


본주(작·연출가)
Bonjoo
Playwright·Director


이경헌(극작가)
Lee, Kyeong Heon
Playwright


강동훈(극작가)
Kang, Dong Hoon
Playwright


박주영(작·연출가)
Park, Ju Young
Playwright·Director


배해률(극작가)
Bae, Hae-youl
Playwright


신진호(연출가)
Shin, Jin Ho
Director


강현주(작·연출가)
Kang, Hyun Ju
Playwright·Director


진해정(작·연출가)
Jin, Hae Jung
Playwright·Director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
(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Director


이자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 남겨진 존재의 위악적(僞惡的) 고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극작가 이경헌의 작품 세계

김기란 연극평론가

## 극작가 이경헌, 희곡과 무대의 간극이 없는 탄탄한 극작법

극작가 이경헌은 서른 즈음인 202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이번에 공연되는 신작 〈빈자리 없음〉(2026.10.28.~11.15, 두산아트센터 Space111)은 등단 이후 3년 동안 그가 발표한 〈서재 결혼 시키기〉(2025), 〈감정 연습〉(2026)의 뒤를 잇는 소위 '자살 사별자' 연작의 세 번째 작품이다.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작가가 된 것 마냥, 그는 쉴 틈 없는 왕성한 필력으로 자살 사별자들의 이야기를 3편의 장막극으로 완성했다. 신인 극작가가 등단과 동시에 매년 장막극을 완성하는 일은 흔치 않다. 더욱이 연작 3부작이란 극작가로서는 보기 드문 도전이다. 그를 '괴물 같은 신인' 극작가로 주목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그가 발표한 희곡이 모두 실시간 무대화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등단 당선작인 〈래빗 헌팅〉은 2024년 12월 우현주의 연출로 대학로 혜화당에서 〈사슴 죽이기〉와 함께 공연되었다. 〈서재 결혼 시키기〉는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봄 작가, 겨울 무대'의 낭독을 거쳐 2025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후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감정 연습〉 역시 2025년 두산아트랩에 선정된 후 2026년 서울연극제 공식초청작으로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202에서 공연되었다.

희곡은 무대화를 전제로 한 텍스트라는 일반적 상식과 달리, 극작가의 희곡이 그대로 무대로 직행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무대를 만들 기회라는 외부적 요인과 별개로, 희곡 텍스트 자체가 무대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희곡이 그대로 무대가 되는, 희곡과 공연의 간극이 없는 탄탄한 극작법이야말로 이경헌의 극작가로서의 장점 중 하나다. 일례로 2025년 봄 두산아트랩에 선정되어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공연된 〈감정 연습〉은 전면적 무대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낭독이 우세한 무대였지만, 두 배우의 대사가 발화되는 순간 공연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무대를 제공했다. 희곡의 본질, 극작의 특질이 최소한의 대화 형식만으로도 드러난 것이다.



## 세 편의 연작, 자살 사별자들의 후일담

이경헌의 3편의 연작은 놀랄 정도로 선명한 단 하나의 상황을 공유한다. 자살을 선택한 누군가의 주변에 남겨진 사람들, 곧 자살 사별자가 겪는 심리적 혼란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은근한 압박이다. 연작의 단초는 그의 등단작인 단막극 〈래빗 헌팅〉에 이미 배태되어 있다. 특정 공간, 자살자 주변의 남성, 이미 일어난 사건, 감정이 제거된 건조한 대화라는 연작을 관통하는 공통 요소가 〈래빗 헌팅〉에는 모두 담겨 있다.

"트럼프 놀이로 세상살이를 비유하는 솜씨와 패를 쉽게 보여주지 않는 플롯 기술이 빼어난 작품"(연극평론가 김명화) 이라는 심사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래빗 헌팅〉은 학교 숙직실에서 트럼프 게임을 벌이는 두 남성 교사의 대화를 통해 학생 자살 사건 이후의 학내 갈등 상황을 들려준다. 트럼프 게임의 규칙과 속성에 대한 설명은 어느 순간 학생 자살과 연관된 정황과 겹쳐지고, 학생 자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날선 공격과 냉소적 방어가 트럼프 게임의 카드패처럼 오고 간다. 극은 래빗 헌팅의 선택을 남겨놓은 채 갑작스러운 암전으로 끝난다. '래빗 헌팅'은 상대의 카드패를 볼 수 없는 불완전 정보 카드 게임인 포커에서 이미 접은 카드패를 다시 뒤집어 확인해 보는 행위를 말한다. 극에서는 이미 일어난 학생 자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택을 은유하는 장치로 쓰였다.

〈래빗 헌팅〉은 학생 자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해주지 않은 채 마무리되는데, 이후의 연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곧 세 편의 연작에서는 단막극인 〈래빗 헌팅〉에서 제시된 이미 일어난 자살 사건을 바탕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죽음을 대면하는 태도(〈서재 결혼 시키기〉, 〈감정 연습〉)와 죽음에 대한 책임의 무게(〈빈자리 없음〉)를 다룬다. 한 대목도 놓칠 수 없는 밀도 높은 대화, 인물들의 세밀한 심리 변화와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풍성하게 채워진다. 자살 사별자들의 후일담이 중심 내용을 구성하는 만큼 행동이나 극적 사건은 무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가 고요한 듯 격렬하게 충돌할 뿐이다. 행동을 대신하는 건조한 대사는 감정이 배제된 논리와 논박의 성격이 강하다.

세 편의 작품이 구분되는 지점도 있다. 우선 〈서재 결혼 시키기〉와 〈감정 연습〉은 동일 인물의 이야기로 함께 묶어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 〈서재 결혼 시키기〉는 아내를 자살로 잃고 아내와 함께 정리한 집 안 서재를 서성거리는 한 남성이 중심인물이다. 〈감정 연습〉의 중심인물 역시 아내를 자살로 잃은 남성이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도서관 보존서고에서 역시 아내와 사별한 시한부 환자 김 선생과 독서 토론을 이어간다. 마치 아내를 자살로 잃은 한 인물이 퇴근 후 집 안 서재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출근 후 일터인 도서관 보존서고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처럼 두 작품을 연결해 볼 수도 있겠다. 두 작품 모두 죽은 자를 향한 애도를

공통의 감정으로 수렴하는 통념을 거부하지만, 〈서재 결혼 시키기〉는 남겨진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하는 각각의 방법과 선택에 대한 존중을 담아내고, 〈감정 연습〉은 애도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함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빈자리 없음〉은 〈래빗 헌팅〉의 확장판처럼 보인다. 교내 학생 자살 사건, 미술교사와 수학교사 등 〈래빗 헌팅〉에 등장했던 사건과 인물이 공유되며 구체적인 상황과 내밀한 관계가 보충된다. 친구이고 제자였던 한 여학생의 죽음 앞에서 이들은 죄책감과 함께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황을 방어한다. 그들의 죄책감과 방어 논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일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무책임한 회피인가 책임의 다른 방식인가. 죽음을 초래한 가해자를 색출하는 것이 죽음 혹은 죽은 자의 존엄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판단은 이번 공연을 볼 관객들의 몫이겠다.

**남성 서사의 귀환과 변화의 모색**

이경헌의 작품에서 주목을 요하는 공통점은 중심인물이 모두 남성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까운 여성을 자살로 잃은 남성들이다. 〈래빗 헌팅〉에 등장하는 교사들은 "미술 30대 초반 남자, 수학 40대 중반 남자, 윤리 30대 후반 남자"로 모두 남성으로 제시된다. 〈서재 결혼 시키기〉의 중심인물은 아내가 자살한 문학평론가 현성주이다. 〈감정 연습〉의 현 선생과 김 선생 역시 모두 아내를 잃은 남성이다.

이들 작품은 공통적으로 한 여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무대에서 말과 행동으로 극을 전개하는 인물은 남성이다. 작품 속 남성들은 죽은 여성에 관해 말할 권력을 독점한 채, 그녀에 관한 말을 매개로 갈등하고 투쟁한다. 〈서재 결혼 시키기〉에는 처제(여성)가 등장하지만, 그녀의 관심이 향하는 대상은 죽은 언니가 아니라 살아있는 형부 성주다. 〈래빗 헌팅〉이나 〈감정 연습〉에서 남성은 극을 진행시키지만, 여성은 '보여지거나 언급되며' 극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요컨대 이경헌의 작품 속 죽은 여성은 남성 인물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극을 추동하는 장치에 다름 아닌 "냉장고 속 여성(Women in Refrigerators)"을 떠올리게 한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한국연극의 주류적 경향은 여성 서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여성 작가가 쓰고 여성 연출가가 무대를 만들었다. 극을 이끄는 중심인물은 여성이고, 극의 주제의식은 여성들의 문제에 닿아 있었다. 젠더 프리 공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경헌의 작품은 남성 서사의 귀환이라 할 만하지만, 핵심은 그의 작품이 전통적 남성 서사를 소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 있다. 그의 작품 속 서사 문법은 전통적 성별화와 거리를 둠으로써 남성 서사 대 여성 서사라는 이항대립을 넘어선다. 가령 〈래빗 헌팅〉은 남성 연대가 공모로 변질되는 상황을 노출하고, 〈감정 연습〉은 남성이 감정을 배우는 내용을 통해 남성의 감정 표현 불능이라는 통념을 문제시한다.

또 이경헌은 갈등에서 절정을 거쳐 해결로 이어지는 선형적 플롯, 공적 영역(전쟁·정치·사회)에서의 선택과 결단, 로고스와 논증적 대결의 언어 등 전통적 남성 서사의 구조 중 일부만을 선택한다. 그가 수용한 것은 "번역극처럼 건조"하게 느껴지고 "지나치게 정교해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 드는 로고스의 논리적 언어뿐이다. 무엇보다 그는 전통적 남성 서사가 지향하는 외향적 행동의 구조를 대신하여, 내면의 분열과 통합을 통한 순환적 구조를 선택한다. 순환, 반복, 파편, 열린 결말, 관계 속의 주체, 억압에 대한 저항, 돌봄과 연대는 일반적으로 여성 서사의 특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남성 서사와 여성 서사를 혼합하는 극작법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래빗 헌팅〉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빈자리 없음〉에서 이러한 측면이





(위)
〈감정 연습〉(2026)
©창작집단 LAS

(아래)
〈감정 연습〉 두산아트랩 공연(2025)
©두산아트센터

한층 정교화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래빗 헌팅〉의 자살한 여학생 윤주는 숙직실 포커판이라는 남성들의 놀이 공간에서 교환되는 카드처럼 언급된다. 카드패를 만지며 윤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는 방식이다. 윤주의 죽음은 거래되는 판돈처럼도 취급된다. 자신의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윤주의 목소리는 극 마지막 봉투 속 편지에 들어 있을 것이다. 수학 교사는 봉투를 꺼내며 "래빗 헌팅을 해보실래요?"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 봉투는 열리지 않은 채 극은 끝난다. 윤주의 목소리는 남성들의 해석으로 존재하고 거래가 성립될 때에만 들리게 된다.

〈빈자리 없음〉은 〈래빗 헌팅〉의 기본 설정을 공유하되 윤주의 목소리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무대에 세운다. 윤주는 고등학생 주은을 통해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경헌의 작품에서 그동안 부재해 온 여성의 목소리가 말하는 주체로서 여성을 통해 들리게 되는 변화를 이번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재 결혼 시키기〉
봄 작가, 겨울 무대(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촬영 옥상훈)



**위악적 태도가 말하는 것, 애도와 책임**

마지막으로 이경헌 작품 속 중심인물들이 견지하는 위악적 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악적'이라는 단어는 내면과 외연이 다를 때 그 다름을 드러내는 방식이 악한 태도로 나타날 때 사용된다. 실제로는 악하지 않다는 전제가 동반된, 위악적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내용을 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응시한 후 발견된 스스로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한 전략적 태도에 가깝다. 무례하고 양보 없는 냉소로 응대하는 극 중 중심인물들의 태도도 이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날 선 언어로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대상이 그들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여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인 그들이, 그들의 위악이 나름의 애씀임을 극이 끝나면 알 수 있다. 그들만의 애도이고 그들만의 책임감이다.

**김기란**
항상 작품 편만 드는 자발적 비주류 연극평론가로 살고자 한다. 그저 한갓 연극평론가에서 잠시 월간 『한국연극』 편집주간으로 복무했고, 대학 연극학과에서 강의 중이다. 일찍이 무대 위 '재현의 윤리' 문제를 제기했고, 여전히 그 문제를 '정동이론'을 통해 탐색 중이다. 코로나를 틈타 연극평론집 『비주류들의 말하기—2000년대 한국연극의 새로운 입장들』(2021)을 펴냈고, 2021년 여석기 연극평론가상을 수상했다.



“나는 안예지의 빈자리예요.”

예지는 작년 여름에 자살했다. 주변 사람들은 주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물었다. 주은은 예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예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주은은 다양한 질문을 받았지만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그런 반응은 주은을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주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주은은 책상과 의자를 교무실 복도에 옮겨놓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주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

주은과 예지의 담임이었던 이림은 다시 주은의 담임에 자원했다. 이림은 주은을 상담실로 불러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지만 주은은 대답하지 않는다. 주은은 한참 동안 이림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이 예지를 죽였다는 이상한 말을 시작한다.



음성 안내

작



## 이경헌

DAC Artist

작 〈감정 연습〉〈서재 결혼 시키기〉〈사슴 죽이기〉〈래빗 헌팅〉

수상 2023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래빗 헌팅〉



작가 노트

나는 자정을 앞둔 시간에 친구와 연남동을 산책했다. 희곡을 쓰는 동안에는 새로운 경험을 지양하는 편인데 어떤 충동에 신발을 신은 상태였다. 바닥에 깔린 철길 때문인지 봄과 여름의 경계를 횡단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얕은 강가를 연상시키는 공원에서 우리는 벤치를 발견했다. 친구는 "벤치에 앉자!"가 아니라 "벤치에 앉아!"라고 말했는데 그 미묘한 차이가 웃기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반려동물을 키운 영향일까? 친구는 자정이 지나기 전에 듀오링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친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 중단된 산책을 재개했다. 혼자 걷는 길은 같이 걷는 길과 달랐다. 나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한 후 벤치로 돌아왔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나오길 잘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마음을 간지럽히는 간절기 바람이 불었다.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얼굴에 당황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근황을 물었는데 동창은 십오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동창에게 친구를 소개하는데 이상한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감을 앞두고 산책을 하지 않는다. 나는 연남동 주변에 살지 않는다. 그런데 평생 한 번밖에 앉아본 적 없는 연남동 공원 벤치에서 어제까지 미국에 있었던 동창과 마주친다. 만약 친구가 듀오링고를 늦게 끝냈다면 마주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현실에 필연성은 없었다.

〈빈자리 없음〉을 쓰는 동안에는 '0'과 'O에 가까운 것'에 대해 생각했다. 죽음이라는 큰 개념을 작은 의미로 쪼개보는 것을 반복했다. 어쩌면 죽음은 충동적 산책 중에 그 사람을 마주칠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는 세계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세계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나는 생각했다.



## 신명민

창작집단 LAS 부대표

연출

연극 〈감정 연습〉〈굿피플〉〈서재 결혼 시키기〉〈그 순간, 시간이 멈춘다〉
〈한성의 이발사〉〈낯선 이〉〈혼마라비해?〉〈미래의 여름〉〈우리별〉
〈철가방추적작전〉〈레라미 프로젝트〉 외

수상 2020 제41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혼마라비해?〉
2019 한국극예술학회 올해의 작품상 연극부문 〈철가방추적작전〉





## 빈자리를 바라보는 일, 곁에 머무는 일

어떤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조차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누군가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죽음이 자살이라면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에 앞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은 아닐까. 그때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한다.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이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이 공존한다. 그러는 사이 정작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들여다볼 시간은 점점 사라진다.

자살 사별자의 애도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때로는 타인의 시선과 편견을 견뎌야 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감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실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한다. 말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위로라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침묵이 언제나 위로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침묵은 남겨진 사람을 더 고립시키고, 자신의 슬픔마저 숨겨야 한다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

우리는 슬픔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강하다고 말하고, 오래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말한다.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하라고 하고, 자책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서둘러 답을 건넨다. 선의로 건넨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애도에는 정답이 없다.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슬퍼할 수 없으며, 누구나 같은 속도로 상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통해 슬픔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모든 시간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을 통과하는 시간일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슬픔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존재할 자리를 내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연극 〈빈자리 없음〉은 그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 사라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되짚는 시간, 사랑과 원망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마음, 그리고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말들에 관하여.

누군가를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적절한 위로의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사람,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어주는 사람,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자리, 떠난 이를 기억하고 이야기해도 비난받지 않는 자리가 필요하다.

〈빈자리 없음〉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는 연극이기를 바란다. 극장이라는 공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외면해 온 상실을 함께 바라보고,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대하는 태도에 작은 변화가 남기를 바란다.

상실을 말하는 일이 더 이상 금기가 되지 않는 사회.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애도의 속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도움을 청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누군가의 고통을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일, 곁에 있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빈자리 없음〉이 우리에게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연극을 마주하는 모든 분이 자신의 상실을, 혹은 타인의 상실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무언가를 잃고, 누군가의 상실 곁에 서게 될 테니까. 그때 서로에게 빈자리를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슬픔이 머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빈자리 없이 남아 있기를.



**작품 이해**

##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빈자리가 된다

고선규 임상심리학 박사·작가

사망진단서에는 죽음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기록된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그에 이르게 한 선행 원인은 무엇인지. 사망 원인을 적는 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주의 사항이 적혀 있다. '직접·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죽음이 질병이 아닌 외부의 사건으로 일어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 사건의 의도성을 묻는다. 이를테면 '추락'은 사건이며, '자살'은 그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의도했다는 판단을 포함한다. 그렇게 사망진단서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꽤 많은 것을 말해준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떤 경위를 거쳐 죽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의도한 죽음이었는가. 그런데 자살 옆 괄호에 체크하고 나면 가장 큰 질문 하나가 남는다.

왜 죽으려 했는가.

누군가를 자살로 잃는 경험은 사망진단서가 묻지 않는 이 빈칸에서 시작된다. 자살 사별자는 마지막 대화, 달라진 표정과 태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말과 행동 같은 조각들을 배열하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의 선을 긋는다. 이것이 이유였나 싶으면 새로운 조각이 떠오르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조각은 흐려진다. 어떤 조각에는 지금의 필요에 의해 형광펜을 진하게 칠하기도 한다. 조각이 늘어날수록 죽음이 더 잘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더 많아진다.

예지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주위를 맴돈다. 역사 교사 현희는 기록과 시점을 따지고, 수학 교사 이림은 정답보다 그 답에 이르는 풀이 과정을 들여다본다. 미술 교사 윤준은 감각과 경험, 기억을 만지작거린다. 다미는 분노와 비난을 통해 죽음의 책임을 묻고, 주은은 흩어진 조각을 모아 원인과 결과 사이에 끊임없이 선을 긋는다. 이들 모두 애도하고 있으며 누구의 방식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각자 다른 선에 머무느라 서로의 애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저마다 외롭다. 작품 속 여러 인물에게 나뉘어 있는 이 모습들이 실제 애도에서는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내가 만난 사별자들 역시 어느 때에는 사실을 확인해 인과관계를 찾고, 어느 때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을 묻다가, 또 어느 때에는 죽은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사이를 오가고 되돌아간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애도에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한때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삶을 죽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는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찾아오는 자살 사별자의 상당수는 '도대체 왜?'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결말을 알고 삶을 거꾸로 따라가다 보면 그 이전의 사건이 모두 그 결말을 향해 놓여 있는 조각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그 사람이 줄곧 자신의 죽음을 향해 살아온 것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심리부검에서는 죽음 이전의 말과 행동, 정서 변화 가운데 일부를 '자살 경고신호(Warning Signs)'라는 이름으로 확인한다. 물론 누군가는 죽기 전 자신의 고통과 죽고 싶은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낸다. 문제는 시점이다. 사후에 식별할 수

† 자살을 행한 사망자의 죽음과 관련된 정신적, 행동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는 행위.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자살자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고인의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출처: 위키백과)

있었다는 것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르다. 죽음이라는 결말을 알고 나면 과거의 어떤 행동을 경고신호였다고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사후에 알게 된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그 시점의 사람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알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현희의 말에 뜨끔한다. "전조는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발명해 내는 거야.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기억 같은 거지." 작품의 첫 장면에서 주은은 예지에게 수학의 극한을 가르친다.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설명을 들은 예지는 이상한 곳에서 멈춰 선다. "어떤 대상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졌는데……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말한다. "잔인하잖아. 무려 '한없이 가까워졌는데……'" 예지가 죽은 뒤 주은이 하는 일 역시 예지의 죽음에 한없이 가까워지려는 일처럼 보인다. 죽음이라는 결말에서 출발해 예지의 삶을 거꾸로 읽는다.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업성적, 친구와 교사,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까지 하나씩 불러낸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더 많은 사실을 모으고 복원한 기억의 조각 사이에 촘촘하게 선을 그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낀다. 특히 자살로 누군가를 잃은 사람에게 그 욕망은 더 간절하다. 이유를 알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과 그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르다. 그가 겪은 사건을 모두 안다고 해서 그 사건을 살아낸 사람의 경험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일과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는 일은 같지 않다.

작품의 끝을 향해 가면서 주은도 이 질문 앞에 도착한다. "저는 안예지가 죽은 이후에 안예지를 이해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가까워지는 걸까요?" 이림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주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한다. 어쩌면 자살 사별자가 오랜 시간 끝에 겨우 입 밖에 내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잘 모르겠다'일지도 모른다. 애도는 알 수 없는 것을 끝내 알아내는 일이라기보다, 알 수 없는 것이 남아 있음을 견디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주은은 말한다. "그냥 안예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림이 "예지에 대해 떠오르는 걸 말해줄래? 걔가 어떤 애였는지……"라고 묻자 예상치 못한 기억의 조각들이 돌아온다.

예지는 만져보지도 않고 맛있는 귤을 골라낼 줄 알았다. 귤껍질을 아주 빨리 깠고, 또 아주 많이 먹었다. 후회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조각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고, 케이크를 먹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문자로 '웃겨'라고 보낼 때는 정말 웃고 있었다. 앞에서 모았던 조각들이 예지가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조각이었다면, 이제 돌아오는 조각들은 예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조각이다. 어느 한쪽만 진실인 것은 아니다. 고통도, 갈등도, 실패도 예지의 삶에 있었을 것이다. 귤과 케이크와 웃음도 있었다.

예지가 사라진 뒤에도 세계는 계속된다. 횡단보도 주변의 물웅덩이에는 신호등 불빛이 번지고, 빗물을 품은 낙엽과 필터만 남은 담배꽁초, 도로의 노란색 페인트도 그대로 있다. 작품은 이 풍경을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은 모습"이라고 쓴다. 내 세계는 부서졌으나, 세계는 부서지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계에 없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나는 여전히 이 세계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작품 속 문장처럼 "우리가 함께한 순간을 떠올리면 다시 걸을 수 있었다." 기억은 부서진 세계를 복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계를 다시 걸을 수 있게 한다.

학교는 예지가 죽은 뒤 책상과 의자를 치운다. 빈자리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은은 나중에 말한다. "제가 안예지의 빈자리였거든요." 책상 하나를 치우면 빈자리는 없어질 수 있다. 원인 하나를 찾아내면 빈칸도 채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관계가 남긴 자리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사라지고서야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던 자리의 모양을 알게 되듯, 관계란 서로의 삶에 내어주며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리이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빈자리가 된다.

**고선규**
임상심리학 박사이자 임상심리전문가. 죽음과 상실, 애도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애도 리터러시를 넓히는 데 관심을 두고, 교육과 글쓰기뿐 아니라 음악·연극·무용·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협업하며 상실과 애도를 이야기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제51~52대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우리는 모두 자살 사별자입니다』, 『여섯 밤의 애도』, 『슬픔이 서툰 사람들』 등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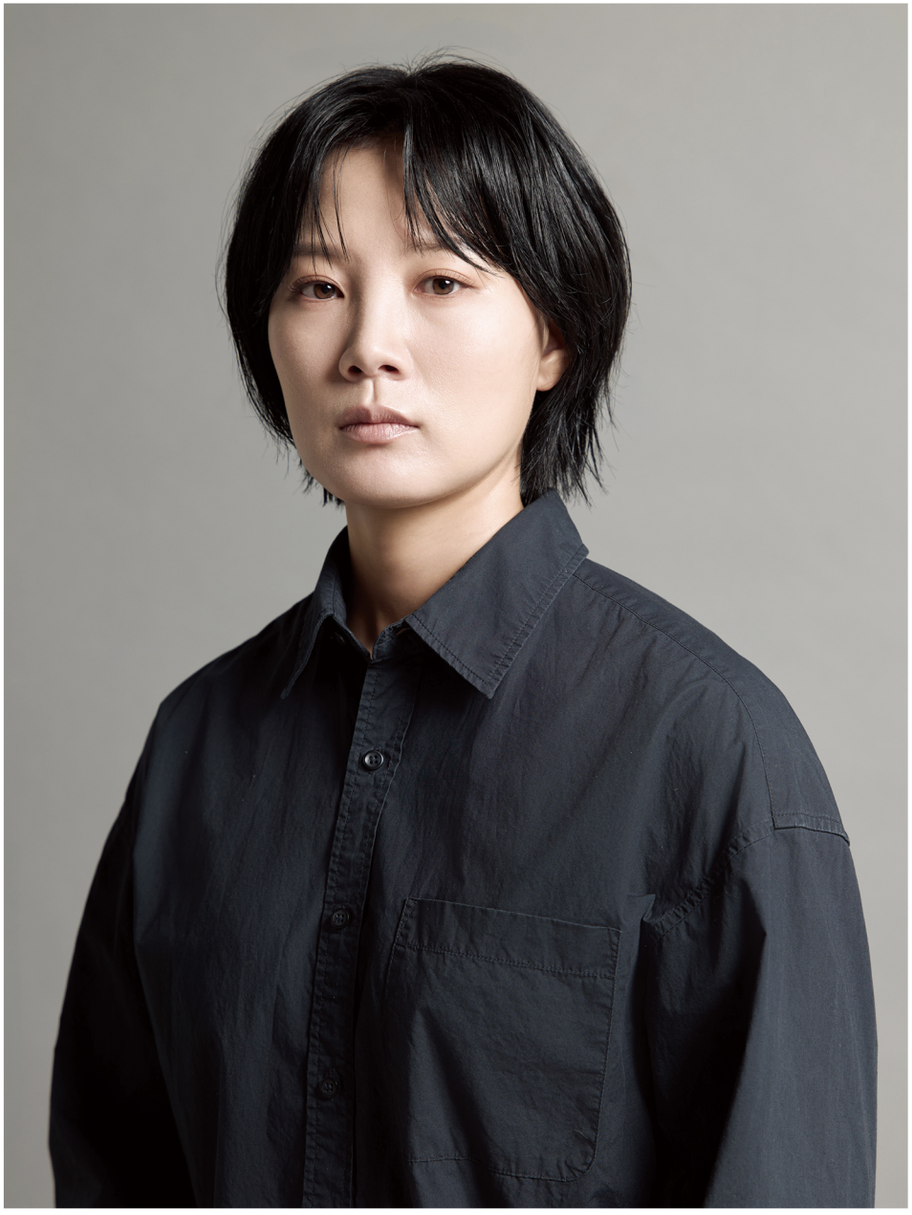
**박세인**

남주은 역

연극 〈99%천재일기〉〈침묵과 소음〉〈도비왈라〉
〈쿠키, 앤, 크림〉〈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
〈이상한 나라의, 사라〉 외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3〉 외





**정다함**

안예지 역

연극 〈내가 살던 그 집엔〉〈시련:무금〉〈섬X희곡X집〉〈커튼〉
〈나는 광주에 없었다〉〈상공낙하〉〈테디 대디 런〉
〈안티고네, 나는 영웅이 아니다〉〈사나이 와타나베〉
〈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공의 기원〉 외



**김빛나**
강다미 역

연극 〈헤파이스토스 로미오와 줄리엣〉〈유명배우 시작하기〉
〈세 여자, 세 남자〉〈죽은 남자의 휴대폰〉〈신파의 세기〉
〈일의 기쁨과 슬픔〉〈타인의 눈〉〈8월의 색〉
〈소는 누가 키우고 논문은 누가 쓰나〉〈보통의 택시〉
〈루트64〉〈우르따인〉 외
뮤지컬 〈도연〉〈창문너머 어렴풋이〉





**신윤지**
이이림 역

연극 〈낮에 본 갈림길〉〈렁스〉〈빅 마더〉〈멸종위기종〉
〈POOL(풀)〉〈줄리엣〉〈참외가 데굴데굴 굴러가면〉
〈도비왈라〉〈커튼〉〈보도지침〉〈산재일기〉〈목련풍선〉 외
수상 2025 제46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산재일기〉



**박용우**

임윤준 역

연극 〈걷는 객석: 돌아온 페이지〉〈사사로운 사서〉
〈멸종위기종〉〈썬더〉〈걷는 객석: 극장의 조각들〉 외





**우미화**

노현희 역

연극 〈S고원에서〉〈금성여인숙〉〈아들에게〉〈시차〉
〈20세기 블루스〉〈사월의 사원〉〈빈센트 리버〉
〈공포가 시작된다〉〈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맨 끝줄 소년〉 외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파인〉〈모텔 캘리포니아〉
〈소방서 옆 경찰서〉 외
영화 〈매드 댄스 오피스〉〈목화솜 피는 날〉〈서울의 봄〉
〈비상선언〉〈담쟁이〉 외

**연습 노트**
배규진 조연출

### 다시금 시작된 새 학기

대본을 배우들과 함께 처음 읽어 내려가며, 애써 상상해야 했던 부분은 인물들의 일상성이었다. 〈빈자리 없음〉의 인물들은 모두 자살 사별자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매분 매초 느끼는 감정과 내보이는 태도가 '슬픔'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으레 주어지는 대학에 가야 한다는 목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은은 겨울방학에도 자율학습을 하러 등교했다. 교사인 이림, 윤준, 현희는 출근해 새로운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며 업무를 지속한다. 예지가 사라진 세계이지만 아직 장마도, 귤도, 조각 케이크와 락밴드도 사라지지 않은 곳. 사라지진 않았으나 의미를 잃은 곳. 이 현실 속에서 이들이 지켜왔을 일상을 기반에 둔 채로 대본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자살자를 생각할 때면 발생하는 낙차의 순간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 행동에 이르는 마음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이, 관객들은 그 중 주은의 세계를 주로 엿보게 된다. 주은은 완벽한 복수를 위한 퍼즐 조각들을 모은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내비치는 주은의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 주인공이 도리어 가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연습 과정에서, 우리는 무대 위에서 즉각적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자 노력했다. 주은 외에도 이 이야기는 정답 같은 인물을 제시하지 않는다. 주은과 비슷한 위치에서 예지의 상실을 겪은 다미는 주은과 아픔을 공유하기보다 책임을 논하고 주은을 비난하는 방식을 택한다. 주은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이림조차도 복수를 하겠다는 주은의 의지와 우연히 맞물리지 않았다면 매우 위태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다.

이와 같이, 〈빈자리 없음〉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모든 자살 앞에서 조금씩 실수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담고자 했다.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제발 그것이 나만은 아니길 바라는 두려운 마음이 결국 손잡이가 없는 커터 칼을 쥐고 겨누는 것만큼 괴로운 일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지

연습실에서 우리는 줄곧 예지의 인물 설계를 위해 '예지는 주은의 세계 안에서 얼만큼 자유로운가', '어떤 내면을 지녔는가' 등을 논의했다. 이해가 잘되지 않는 날이면, "예지는 왜 죽은 걸까!"라고 허공을 향해 대뜸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질문만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기도, 또 멀어져야 하기도 하는 문장이었다. 아무도 답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희곡 너머의 어떤 평행 우주 속 실제의 예지조차도. 한 사람이 자살한 이유와 자신이 그에 미친 영향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일은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통과하는 과정이다. 이런 종류의 궁금증이 가지는 허무함이나 위험함을 잘 알고 있더라도 늘 옳은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무대 위에 등장하는 예지 또한 이러한 주은의 궁금증에서 피어난 마음속 존재이다. 따라서 '알 수 없음' 그 자체 위에 지어진 예지는 주은도, 관객들도 마음대로 규정하고 싶은 동시에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된다. 다만 〈빈자리 없음〉은 예지를 마치 정신분열적 결과로 해석하거나 귀신 같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예지를 그려내기 위해 연습실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친구로서의 기억'과 '복수의 동료'였다. 해결되지 않는 물음을 안고 살아가는 법 또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서, 주은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지를 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은 예지가 아닌 예지의 빈자리를 목격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자신과 예지의 죽음을 관련짓지 않고도 친구인 예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될 때까지.













DOOSAN ART CENTER



**무대디자인 노트**

조경훈
무대디자이너

주은에게 학교는 더 이상 하나의 장소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실과 교무실, 상담실, 미술실은 서로 다른 이름과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예지의 죽음 이후 주은의 기억 속에서 그 경계는 점차 흐려진다. 지나간 사건들은 끝나지 않은 현재로 남고, 서로 다른 순간들은 하나의 공간 안에 겹쳐진다. 무대는 이러한 주은의 '미분된 세계', 분리되어야 할 시간과 공간이 구분되지 않은 채 뒤엉켜 있는 내면의 풍경에서 출발했다.

주은은 예지의 죽음 이후에도 그날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외면했던 순간과 감당하려 했던 책임 사이를 맴돈다. 무대 위에 흩어진 공간과 사물들은 그 시간이 남긴 잔상이다. 모든 장소가 한곳에 겹쳐 있고, 모든 순간이 현재처럼 남아 있는 세계. 그 안에서 주은은 자신을 붙들어 온 기억과 마주하며 비로소 멈춰 있던 시간에서 한 걸음 나아갈 가능성을 발견한다.





## 조명디자인 노트

정유석
조명디자이너

## 그 사이에 남은 것

가끔 가까운 사람의 마음조차 다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저마다 다른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최근 내가 겪고 느꼈던 순간들이 이번 작품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겹쳤다.

빛은 사물의 모습을 비추지만, 그 안에 쌓인 시간과 이야기까지 모두 보여주지는 못한다. 오래된 공간을 재현한 무대 세트가 세월의 흔적은 보여주어도, 실제로 그 시간을 지나온 것은 아닌 것처럼.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눈앞에 비친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과 마음을 모두 알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다.

어쩌면 기억은 하나의 큐브와 닮았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색이 가지런히 맞춰진 모습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여러 색이 뒤섞인 모습으로 남는다. 색의 배열이 달라져도 여전히 하나의 큐브인 것처럼, 같은 공간과 시간을 지나왔어도 저마다의 기억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남는 것 같다.

조명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고 싶었다. 서로 다른 공간들을 비슷한 결의 빛으로 비추다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익숙한 공간이 문득 낯설어지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빛으로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그 빛의 조각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서로 다른 기억과 감정으로 뒤섞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찰나의 어둠 속에는 잔상을 남기고, 어둠이 걷힌 뒤에는 같은 빛조차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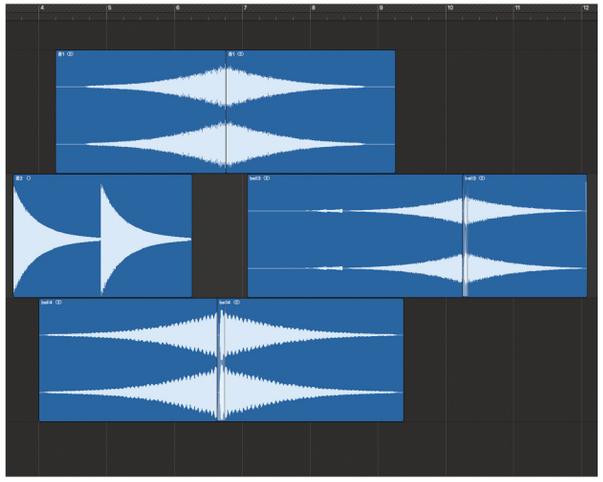
## 음악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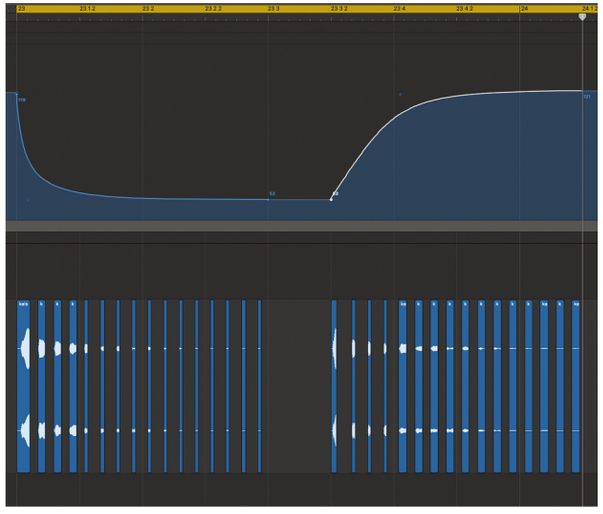
옴브레
음악감독

이번 작품을 들여다보며 시간에 대해 생각했다. 모두에게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만, 개인이 체감하는 시간은 저마다 다르게 흐르기도 한다. 누군가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쓴다.

그러한 시간성을 음악 작업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과거와 미래를 향하는 두 가지 방향성, 즉 거꾸로 재생되는(Reverse) 소리와 정방향(Forward)으로 흐르는 소리가 '음악'이라는 시간의 틀 안에서 뒤섞인다.

날카롭고 예민한 사운드가 첫 번째 레이어를 이루고, 일상에서 흔히 듣던 소리의 조각들로 구성된 따뜻한 정서의 노이즈가 그다음 레이어가 되어 겹쳐지고 때로는 흩어진다. 그렇게 두 개의 레이어로 고슴도치 같은 사운드가 완성된다. 극 중 인물들이 서로 충돌하며 가시를 세우는 이유 역시, 저마다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어서일 것이다.





DAC Artist 이경헌
빈자리 없음

2026.10.28-11.1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아트센터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이경헌

연출
신명민

조연출
배규진

출연
김빛나 박세인 박용우 신윤지
우미화 정다함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무대디자인
조경훈

무대제작
와스테이지(대표 조환준)

제작팀
이종민 윤진상 이범용 임학균
김대영 정병문

작화
작화공간(대표 이남련)

작화팀
채근주 이주은 박지원 이재형

조명디자인
정유석

조명팀장
정하영

조명오퍼레이터
이희주

조명크루
윤혜린 이상혁 이현직 이호연
이희주 정찬영 채희수

음악감독
옴브레

음향디자인 및 음향시스템디자인
박재식

음향오퍼레이터
강성훈

음향크루
강성훈 이주호

의상디자인
오현희

의상제작
팩토리88(대표 오현희)

소품디자인
김예슬

소품어시스턴트
김진아

소품제작
예-술! 스튜디오(대표 김예슬)

분장디자인
자미일룬(대표 정지윤)

분장크루
한지연

분장작업
최혜지

접근성 제작·운영
플랫폼 안녕(대표 이청)

자막영상디자인
이청

영상시스템
이효진 김현회 이우람

한글자막디자인
이청

한글자막오퍼레이터
정혜민

그래픽디자인
박연주

사진(포스터·프로필·설정)
정희승 스튜디오(대표 정희승)

사진(연습·공연·관객과의 대화)
만나 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

영상(공연 실황)
헤즈스튜디오(대표 김선우)

SNS콘텐츠(이미지)
팡팡팡그래픽실험실

SNS콘텐츠(영상)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SNS콘텐츠제작(DACAST)
캄픽처스(대표 최태연)

인쇄
으뜸프로세스

센터장
강석란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김지영 염한별

티켓
이연서 김지은

사무
이지선 오은별

예술사업2팀장
박찬종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전지희 이정민
장보미 홍서희

교육기획
정다운 김서진 이담빈

기술감독
황동철

음향
신승욱 류호성

조명
왕은지 김지산

무대
박소연 김태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김예지 최지인

하우스 안내원
권현수 김경미 김민지 김상윤 김서영
김수빈 김수아 김진형 김태희 문주아
서유정 소서연 오승현 이나예 이수민
전윤희 조수빈



(왼쪽부터 시계방향) 배규진 김빛나 신명민 박세인 신윤지 박용우 정다함 우미화 이경헌

## 일한다는 것에 대한
## 고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 갱更




"나는 일할 때도 급식실
입구에서 다다다 달려오는
그 소리가 좋은 거야."

"그 노인네 몸을 보면
화가 나.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끝이 보여."

"내가 나를 먹고 힘을 내."

오랜 시간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몸에 상처가 생기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실존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몸의 경고와 쓸모에 대한 불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본주 작가의 희곡『갱更』.

##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 강보름 신작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프로젝트 레디메이드

공동창작
진효순 장영 이지현
이리 이미라 송은혜
성수연 백소정 박하늘 강보름

무대감독 이효진
무대디자인 서현재
조명디자인 박혜림
음악·사운드디자인 베일리홍
영상디자인 이화승
의상디자인 이윤진
합창편곡 이예빈

프로듀서 김남현
홍보매니저 백효정

# 헬프
# HELP





접근성매니저 권지현
자막디자인 이청
수어통역 김아영 신지선
수어번역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화수목금 7시 30분
토일 3시
월 공연없음

정가 40,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32,000원

예매
두산아트센터
NOL티켓

문의
프로젝트 레디메이드
050-6850-8105





## 2026.11.25—12.13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 제17회 두산연강예술상

## DOOSAN ARTIST AWARD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 • 시각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수상자

공연예술부문
**김상훈**

시각예술부문
**조익정**

상금 및 부상

**공연예술부문**
**상금 3천만 원**
**공연 제작 지원 (2028년)**

**시각예술부문**
**상금 3천만 원**
**전시 지원 (2028년)**
**두산 해외 레지던시 3개월 입주 지원 (2027년)**

#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 공연 예술

### 연강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5.10.30 — 26.1.25
연극 빵야 3.3 — 5.24
연극 플리백 6.19 — 9.6
뮤지컬 렛미플라이 26.10.6 — 27.1.3

###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6**
연극 개기일식 기다리기 1.15 — 1.17
연극 경계넘기: 신진순박소영박뽀또 Part.1
1.22 — 1.24
연극 공룡과 공룡동생 1.29 — 1.31
다원 곡예사훈련 2.5 — 2.7
연극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
3.5 — 3.7
연극 나의 땅은 어디인가 3.12 — 3.14
여성국극 자네는 왜 그리 굉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 3.19 — 3.21
연극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 3.26 — 3.28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연극 모어 라이프 4.29 — 5.17
연극 원칙 5.27 — 6.14
연극 나는 나의 아내다 6.24 — 7.12

**공동기획**
연극 99%천재일기 4.4 — 4.19
연극 경성의 고독한 미식가들 7.25 — 8.9

**DAC Artist**
연극 갱更 9.2 — 9.20
연극 빈자리 없음 10.28 — 11.15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헬프 HELP 11.25 — 12.13

## 시각 예술

**두산갤러리**
두산아트랩 전시 2026 1.28 — 3.7
DCW 2025 퍼블릭: 하루(들) 3.19 — 4.4
DCW 공모 기획전: HUMORS(후모어스)
4.22 — 5.3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3개국어 6.24 — 8.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정여름 개인전: 복수 8.26 — 10.17
두산갤러리 기획전 12.9 — 27.1.30

##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7 — 2.13, 7.8 — 8.14
두산인문극장 강연 4.6 — 6.29
두산아트스쿨: 미술 4.9 — 4.30,
11.5 — 11.26
두산아트스쿨: 공연 8.18 — 8.21
두산아트센터 투어 9.21 — 9.22
Studio DAC: 아트 클래스 3.25 — 6.24,
10.7 — 12.16

## 공모

**공연 예술**
DAC Artist 1.5 — 1.22
두산아트랩 공연 5.4 — 5.28

**시각 예술**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8 — 5.8
두산아트랩 시각 9.29 — 10.9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1.17 — 11.27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artcenter.com